

海外直接投資理論에 관한 小考

賓 鳳 植

A Study on the Theory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Bong-Sik. Bin

Abstract

Although Korea is short of capital, technology, and natural resources, she has achieved an outstanding progress by the export-drive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creative endeavor of Korean firms. As a result of that, Korean economy and enterprises are in the same fi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Korea is ready for an economic take-off as a developed country.

But in the early 1980s, each country strengthens protective trade theory and resources nationalism, and thi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spite of that, to continue the same high development as that of the past, Korea must try to secure and find export markets, solve trade barriers, make sure of the long-term security of resources, develop technology, and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s.

To satisfy these desires by 2000s, we must try to make Korean enterprises have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nd them grow strongly among world wide firms through capital and technology accumulated during the passed years, and to do so, there must be a foreign production and marketing management, too, this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foreign overseas direct investment. This investment has various forms, to say, vertical integrated, horizontal integrated, conglomerate integrated forms, and the amount of investment in each country from 18 century to today reaches 500 billion dollars.

This investment is done by strategic, behavioral economic, and financial motives. So I am going to approach the fields of like these; in spite of the differences among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and social systems, and many risk compared with domestic enterprises, why do Korean firms wish to transfer the productive facilities to overseas countries and run them there? What i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red with domestic investment?, why is the factor of comparative advantage transferred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what is the motive of foreign overseas direct investment?, and last the ownership-specific factors and the theory of internalization, and the location specific factors were analysed chiefly. But in consideration of the given condition in Korea, Korean overseas direct investment must be propelled ratio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theory.

I. 序 論

우리나라는 資本, 技術, 賦存資源이 貧弱하고 과잉인구와 국내시장이 협소함에도 수출드라이브 정

책과 企業의 創造의인 努力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이룩한 結果 經濟力 增大와 企業 擴大 등으로 이제 先進國으로서의 跳躍을 눈앞에 두고 있는 新興工業(NICS)의 隊列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2차 石油波動과 1980년대 初世界不況으로 各國은 保護貿易主義와 자원내소날리증이 強化되고 있어 貿易環境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경제가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시장의 확보와 새로운 市場開拓, 貿易摩擦解消, 資源의 長期安全確保, 技術開發, 諸外國과의 經濟協力強化, 産業高度化, 經濟開發이 要請된다.

이와같은 諸 環境을 해결하여 2000년대 우리나라가 先進國 隊列에 합류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동안 蓄積된 資本과 技術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企業이 世界的인(global) 競爭力을 갖는 世界産業(global enterprise)으로써 海外生産과 마케팅 活動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海外直接投資이다.

이 投資는 장래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 기술, 경영, 노우하우, 용역을 제공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에 의한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른 외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動機(motives)를 이론적으로 考察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며 문헌을 통하여 연구코자 한다.

II. 海外直接投資의 흐름과 特徵

1. 해외직접투자의 흐름

海外投資는 (foreign investment) 國際間的 長期投資移動의 한 形態로 外國의 實物資産, 株式 등을 取得하는 行爲¹⁾인데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個人이 發行한 증권, 사채, 약속어음, 은행예금증서 등이 發行國 以外的 나라에서 구입하거나 借款 등의 形態로 供與하여 利子나 配當所得만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와, 이와 對照되게 一定한 企業이나 個人이 自國 以外的 나라에 投資하여 利潤增大를 一次 目的으로 經營에 參與하는 投資行爲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前者를 間接投資(port-folio)라 하고 後者를 直接投資(direct investment)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이 直接投資를 經營的 側面에서 附言하면 經營能力, 技術知識 등 經營資源을 現地國(host country)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즉, 利潤獲得動機를 前題로 한 母企業의 現地企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콘트롤(Control)을 目的으로 有形的 經營資源인 經營管理上的 經驗과 知識, 페이턴트(Patent), 노우하우(Know-How), 마케팅의 技術을 포함한 技術的, 專門的知識, 販賣原料購入, 資金調達 등의 市場에서 地位, 商標, 信用, 情報蒐集, 研究開發 등의 조직이라 말할 수 있다.²⁾ 世界 各國에는 支店 및 子會社網을 가지고 이러한 直接投資를 수행하는 많은 多國籍 企業이 있다. 사실 이제 거대한 多國籍 企業들은 다수의 海外直接投資를 組織化하여 市場戰略을 실천하기 때문에 海外直接投資問題와 多國籍問題는 이를 區別해서 취급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이 투자문제는 특히 美國系 多國籍 企業이 유럽에 먼저 진출한 후 美, 歐, 日本 多國籍 企業들이 獨占利潤을 찾아 世界 各地에 침투 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國際的인 大石油會社를 만들어 原油의 採掘을 위해 產油國에 直接投資를 하고 本國 또는 需要國에서 精製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垂直的統合(vertical integration)과 危險分散 및 企業規模의 經濟性으로 同一業種의 企業活動을 地域的으로 擴張시키는 水平的統合(horizontal integration), 그리고 生産, 需要面에서 엄밀한 관계가 없는 분야까지 包括해서 運營하는 複合企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多角統合(conglomerate integration) 등과 같은 形態를 취하고 있다.³⁾

이러한 直接投資가 2次大戰 前에는 주로 原料 및 資源을 開發 또는 植民地에 進出함에 따른 一種의 垂直的投資가 大種을 이루었으며 投資에 대한 危險이나 不確實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戰後에는 製造業 分野를 中心으로 先進國 相互間에 水平的投資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2次大戰後인 1946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戰爭의 被害로 인해 資本入國으로 轉落하였고, 美國이 戰後의 被害國을 돕기 위하여 民間直接投資가 展開되었다. 1950~1960년대 後半까지 海外直接投資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戰爭의 파괴로부터 回復되어 世界의 直接投資가 점점 活氣를 띠게 된다. 특히 美國의 比重이 높은 반면 영국, 프랑스가 쇠퇴하고 일본, 서독이 두각을 나타낸 기간이었고 1960년대 後半부터 1970년대 末에 이르는 期間까지는 美國의 海外直接投資가 相對的으로 世界全體에 對한 比重이 減少한 反面, 유럽기업, 특히 서독과 일본의 投資가 活發한 時期였다.

1)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안내, p.3, 84, 1.

2) 日本輸出入銀行 海外直接投資編, 海外投資の手引, 日本文庫, p.26, 1976.

3) 玉階鍾, 多國의 企業經濟論, 法文社, p.75~99, 1983.

이제 1980년대를 맞이하여서는 日本과 西獨의 海外直接投資가 더욱 本格化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世界海外直接投資의 版圖는 多極化 時代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 歐美經濟의 停滯와 때를 같이하여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는 간 蓄積한 技術力과 經營 ノウ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開發途上國爲主 및 資源開發爲主에서 脫皮하여 對歐美諸國에 製造分野의 投資가 더욱 促進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83년 末 현재 海外直接投資가 401件 368.4百萬弗이었는데, 83년 한 해만 해도 49件, 96.8百萬弗의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 졌는데, 製造業의 增加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같은 해외직접 투자에 대하여 하이머(S. Hymer)는 오늘날 해외직접 투자기업은 년 8% 생산을 증가하는데 비하여 여타 企業은 年평균 4% 증가에 못미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국적 企業의 생산은 2005년에 세계 총생산량의 50%, 2040년에는 8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

2. 海外直接投資의 特徵

이와같은 海外投資의 흐름을 볼 때 戰後 海外直接投資의 主要한 特徵은 첫째, 地域的 集中現象으로 1970년대의 海外直接投資가 日本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先進國에 대한 投資로 海外直接投資殘高의 3분의 2가 對 先進國 投資였고, 둘째, 特定産業에의 集中現象을 들 수 있다. 最近 直接投資의 顯著한 特徵은 製造業에 대한 直接投資가 그 中心을 이룬다는 點이다. 그리고 製品差別化가 강한 産業에 集中되는 傾向이 있는데 그 代表인 것이 電子, 自動車, 컴퓨터 등의 産業이다. 셋째, 寡占의 大企業에 의한 集中現象이다. 美國 海外直接投資의 大部分을 先進技術을 가진 寡占의 大企業에 의한 것이었다. 넷째, 所有權樣相의 變化이다. 投資國에 따라 多樣한 差異가 나타나지만 종래의 完全所有와 過半數所有의 形態에서 벗어나 점차 少數所有의 形態로 그 樣相이 변모해 가고 있다. 다섯째, 단순한 貨幣의 形態의 資本移動 뿐만 아니라 有形, 無形의 經營資源移轉을 意味한다.⁵⁾ 여섯째, 資本의 輸出이자 同時에 企業의 輸出로 한 國家의 企業이 國內市場 指向經營(domestic market-oriented management)에서 世界市場指向經營(international market

- oriented management)으로 轉化되고 있다.⁶⁾

III. 海外直接投資理論

1. 海外直接投資의 動機

이와같은 흐름과 特徵을 갖고있는 海外直接投資는 1870년경 영국이 植民地에 資本輸出로 시작된 이래 世界各國의 海外直接投資殘庫가 現在 약5000억弗에 달하고 있는데 이 直接投資는 다들 動機를 가지고 있다. 投資의 動機는 限界收益이 낮은 國家에서 높은 國家로 移動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인데 投資의 動機를 投資國(home country)의 立場에서 巨視的인 面과 個別企業의 立場에서의 微視的인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微視的인 個別企業의 動機를 살펴 보기로 한다. 投資企業들은 그들 企業環境과 當該企業의 經營戰略, 그리고 現地國(host country)의 投資環境 등에 따른 投資의 動機와 目的을 갖는다. 이 動機를 體係의으로 細分하면 戰略的, 行態的, 經濟的, 財務的 動機등이다.⁷⁾

1) 戰略的 動機(Strategic Motives)

企業이 戰略的 目的으로 海外直接投資를 追求하는 경우의 動機에 따라 ① 市場追求型(market seekers) ② 源資材追求型(rawmaterial seekers) ③ 生産效率追求型(production efficiency seekers) ④ 知識追求型(knowledge Seekers)의 4가지로 區分된다.

市場追求型은 海外進出國에서 生産하여 現地國의 需要에 充當하거나 주로 本國 以外的 國家에 輸出할 目的으로 進出하는 경우인데 美國의 自動車 製造會社 등이 유럽에서 自動車를 生産하여 現地に 販賣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原資材追求型은 現地에서 原資材를 抽出하여 海外에 輸出하거나 現地國에서 直接 加工 販賣할 目的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石油, 鑛物, 農産物, 森林開發에 投資하는 경우이고, 生産效率追求型은 生産要素價格(factors of production)이 낮은 國家에 進出하여 生産效率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自由中國, 멕시코 등에서 電子部품을 勞動集約的인 方式으로 組立케 하는 경우가 이 動機에 속한다. 그리고 知識追求型은 技術이나 經營知識을 習得하기 위한 것으로 獨逸이나 네

4) Kiyoshi Kojima, A macro economic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a New World Trade policy, The maiden head papasic Fred Borgsten, p. 81, 1975.

5) 小宮隆太郎, 天野明弘共著, 國際經濟學, 創文社, p. 435, 1972.

6) 韓國貿易研究所, "韓國海外直接投資促進方案에 관한 研究" p. 11, 1975.

7) David K. Eiteman Arthur I Stonehill,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Second Edition,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F. 231~250, 1979.

덜란드 企業 등이 美國의 半導體技術을 入手하기 위하여 美國 現地의 半導體 會社를 引受하는 것이 그 例이다.

2) 行態의 動機(Behavioral Motives)

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行態動機는 企業外的 與件의 刺戟(stimulus)으로부터 일어나거나 個人的인 偏見, 欲求 및 個人이나 그룹(group)에 對한 관심과 功績(commitments)에 起因한다. 이때 外部與件에 의한 動機賦與要因을 아로니(Yair Aharoni)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⁸⁾

① 外部로부터 不可避한 提案이 있는 경우, 즉, 外國政府나 現地販賣店(distributors) 및 고객으로부터 進出要請을 받았을 때, ② 市場의 喪失可能性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③ 競爭企業이 海外에서 成功的으로 活動하고 있거나 特殊地域에의 投資가 必要하다고 믿을 때, ④ 國內市場에서 外國會社와 熾烈한 競爭이 誘發될 때 外部與件下에서 會社內에 遊休資源이 있거나 現行의 固定費用으로 다른 分野까지 卡버할 수 있을 때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진다.

3) 經濟的 動機(Economic Motives)

海外에 投資한 多國籍 企業은 世界的인 寡占競爭與件(global oligoplistic competition)을 利用하여 長期的인 利益과 株式의 市場價格을 極大化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多國籍 企業은 國際市場 및 個別 國內市場에서의 不動產, 生産要素 및 金融資産이 不完全 狀態에 있을 때 이를 포착 海外에 投資하여 成長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不完全성이야말로 危險에 對備한 收益成果(risk-versus return)가 國內投資市場의 危險-收益率과 比較할 때, 國內보다 더욱 높여주는 機會를 提供하여 주기 때문이다.

4) 財務的 動機(Financial Motives)

海外直接投資는 企業이 財務危險을 國際적으로 分散시켜 危險이 적은 곳에 投資者가 投資하여 財務 및 金融의 復合的인 인센티브로서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現地國의 企業을 壓到하면서 높은 投資收益률을 追求할 目的으로 投

資할려고 하는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2. 海外直接投資 理論의 構成⁹⁾

이와같은 여러 動機에 의하여 國內의 企業이 海外에 投資하게 된다. 投資한 企業이 經營을 外國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國內投資보다 政治 및 經濟的 危險이 追加로 수반되기 때문에 海外投資는 이러한 追加의 리스크와 費用을 卡버할 수 있는 충분한 利潤이 보장될 때에만 行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危險과 내소날리즘의 差別대우를 받으면서 海外投資를 行한 企業이 ① 國內企業에 대하여 가지는 比較優位要素는 무엇이며 ② 이 比較優位要素는 왜 直接投資를 통하여 移轉되는가? ③ 直接投資를 하게되는 立地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한 理論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 세가지의 첫째는 比較優位要素의 選定問題이고 둘째는 資源移動의 方法問題, 즉 內部理論이고, 마지막은 資源移動對相國 즉 立地國의 選定이다. 고로 海外直接投資企業은 政治 經濟的 리스크와 輸送 通信費, 그리고 文化, 社會, 法律, 制度, 言論의 差異와 現地市場에 대한 知識不足 등을 卡버할 수 있는 충분한 收益을 얻을 수 있는 要素를 特定企業內의 優位要素(ownership specific factors)라 한다.¹⁰⁾ 그리고 이 優位要素는 特定企業에 한정되어야 하고 企業內에서는 國境을 넘어서 쉽게 移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特定企業이 優位要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外國企業에 특수한 競爭力을 주지만 왜 生産施設을 海外에 設立하는가에 대한 理由를 설명하지 못한다. 外國企業은 自國에서 生産하여 輸出하거나 外國生産廠에게 라이선싱을 행하므로써 優位要素를 利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海外直接投資理論을 설명하여야 할 두번째 構成要素인 內部收益率 理論(internalization theory)이다. 세번째의 構成要素는 生産立地의 要素(country-specific factor)인 立地理論(location theory)으로 特定國에 生産施設을 設立하게 되는 理由를 說明하여 준다.

이상의 세가지 構成要素를 도표로 나타내면 表 1과 같다.

1) 特定企業의 要素¹¹⁾

海外直接投資는 不完全 市場의 產物이라 할 수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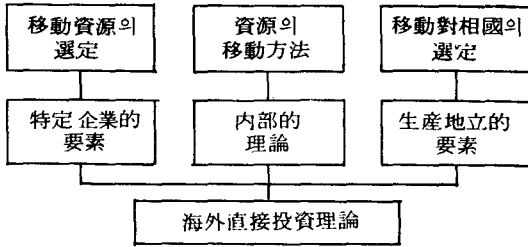
8) David K. Eiteman & Arthar I. Stonehill, op., Cit., p.233.

9) 魚允大,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實證的研究" 韓國貿易學會10週年紀念學術發表會論文集, 韓國貿易學會, p. 8-21. 1984. 6.

10) Neil Hood and Stephen 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gman Group Limited, p.179~228. 1979.

11) John Facyerweather,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 coneptual The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No.2, No2. Fall; p.26~29. 1981.

〈表 1〉 海外直接投資理論의 構成要素



資料：魚久大,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實證的 研究.
韓國貿易學會 10周年 記念 學術發 表會 論文
韓國貿易學會, 1984. p. 8.

다. 킨들버그(Kindleberger)에 의하면 海外直接投資가 可能하려면 商品市場이나 生産要素市場이 不完全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國內市場이나 海外市場의 不完全性에 의해서 多國籍 企業은 다른 企業에 比하여 獨占的 優位要素를 確保하고 海外直接投資를 可能하게 해 준다.

不完全市場의 要因을 要約하면 表 2와 같다.

〈表 2〉 不完全市場 發生의 要因

	不完全市場의 要因	例
Kindleberger ¹²⁾	製品市場의 不完全要因	製品差別化, 특수한 마켓팅技術, 再販賣 價格 維持制度, 管理價格 등
	要素市場의 不完全要因	特許權制度, 技術획득 및 資本調達상의 不平等, 經營者能力的 差異 등
	規模의 經濟	外部的·內部的 規模의 經濟가 存在, 수직적 통합의 利益
	政府의 規制	조세·관세·利子率·換率에 관한 政府政策, 特 定産業에 대한 進出·入의 規制
Ragazzi ¹³⁾	證券市場의 不完全性	外國株式의 危險이 그 증권의 收益率에 効果적 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知識의 優位 및 規模의 經濟	外國企業은 現地企業보다 競爭上 優위에 설 수 있는 要素를 가질 수 있다.
	利潤極大化 가정으로부터 이탈	企業의 目的이 利潤極大化가 아닌 경우가 있다.
	換率 및 關稅의 영향	통화프리미엄은 換危險을 効果적 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

海外投資의 初期理論들은 위와 같은 不完全競爭 狀態에서 얻을 수 있는 特定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優位要素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로 Hymer, Kindleberger, Caves가 定立한 理論으로서 海外直接投資를 要素價格의 相對的 差異와 같은 變 수로 說明하려는 假定을 否認하고 市場의 不完全性 (market imperfections)을 전제하면서 表 3과 같이 市場支配度 (degree of control of markets) 製品差別化, 企業의 수직 및 수평적 결합도를 企業의 相對的 優位性을 中心으로 直接投資를 說明하고 있다.¹⁴⁾ 이 見解는 現實의 經驗的인 事實(empirical facts)로 잘 입증되고 있다. 大部分의 直接投資는 大規模 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技術과 製品差別化가 導入되는 産業分野에 集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優位 要素에 의한 투자 기업이 어떻게 現地國 企業과 경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¹⁵⁾ B國에 進出한 A國企業(A/B)과 B國 B企業(B/B)이 原材料를 同一原價에 導入하여 同一한 技術로 同一한 製品을 生産 販賣할 경우를 假定해 보면 B/B가 競爭의 優位를 確保할 것임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B/B가 市場을 훨씬 잘 알고 政治的關

12) C. P., Kindlederges, op. Cit, pp. 1~36.

13) Giorgio Ragazzi,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MF Staff Papers, p. 471~498. July 1973.

14) R. E. Cav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 1971. 2. Charles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Chapter 1.

15) 韓奇哲, 海外直接投資와 經濟의 波及效果, 金融, p. 28. 82. 2月號.

〈表 3〉 特定企業의 優位要素

優位要素	例	理論 및 主張者
技術的 優位要素	1) 新製品 및 新製造 工程의 開發能力	獨占的 優位論(Hymer, Kindleberger, Caves) 製品壽命理論
	2) 製品의 差別的 能力, 마아케팅 技術	(Vernon, Wells)
	3) 고도의 組織技術 및 經營技法	
産業構造的 要素	1) 과감적 市場構造 2) 規模의 經濟	寡占的 競爭理論(Knickerbocker) 獨占的 傷位論
全世界的 組織網	1) 情報수집 2) 洞察能力(Scanning capability)	(Vernon and Wells)
財務 및 貨幣的 要素	換 率 2) 저렴한 資本調達 費用 3) 地域的 分散	通貨地域理論(Aliber) 코트폴리오理論(Stevens, Ragazzi)
資源産地의 支配	1) 資源生産量의 통제 2) 판매경로 및 수출의 통제	

係, 金融受惠關係가 훨씬 有利하며 顧客과 同一한 言語를 使用하므로 意思疎通의 장애가 없다는 有利한 面이 있기 때문이다. 外國人 所有의 企業보다는 自國企業으로 부터 物件을 사려고 할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A/B企業은 이러한 不利한 點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優位性(special advantage)을 保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優位性의 內容은 ① A/B 製品이 B/B에 比해서 差別化되거나 우월하여야 하고 ② A/B가 우월한 商品을 만들거나 월등한 제품이라도 보다 싸게 生産할 수 있는 技術이 있어야 하며 ③ A/B가 우월한 마아케팅 스킬(skill)을 가져야 한다. ④ 또한 A/B가 높은 廣告費, 研究開發費, 높은 리스크(risk)를 감당할 수 있는 規模가 있어야 하고 ⑤ A/B가 B/B보다 有利한 조건으로 資本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Caves는 특히 A/B의 우월한 知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 의약품 科學器具와 같은 高度의 技術産業, 自動車 타이어와 같은 精密消費者製品, 세척제, 면도날과 같은 特別한 마아케팅 스킬을 要求하는 大衆消費者製品 分野에서 더욱 重要하다는 것이다.

高度의 技術産業에는 美國의 直接投資가 아주 많지만 技術이 이에 定着된 産業分野에는 美國의 直接投資가 거의 없다는 經驗的 증거를 내세우면서 케이크(Caves)는 그의 理論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도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B가 B/B에 比해서 優位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A/B가 自國에 位置

하면서 B國에 輸出함으로써 그 優位性을 살리지 않고 구매여 B國에서 生産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類似한 商品을 취급하는 會社가 相互進出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Unilever會社가 美國에 美國의 Procter & Gamble가 영국에 各各 進出 했는데, 이 兩會社가 各各 相對 會社보다 優位性이 있어서 進出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A/B가 B國에만 販賣하기 위하여 進出한다고 하는 前提도 큰 弱點이 된다. A/B는 B國 外에도 本國인 A國 또는 제3의 C國에도 販賣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內部的 理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어떤 企業이 다른 企業에 比하여 比較優位가 되는 要素를 가졌다고 하며 그, 優位要素를 海外直接投資를 통해서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海外投資는 輸出 라이선싱 등의 方法에 比하여 더 높은 收益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Kindleberger는 라이선싱을 통해서 技術的 優位要素에 대한 충분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海外直接投資를 하는 것이 利點이 된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왜 市場을 통한 知識의 販賣가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解答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解答을 資源移動方法인 內部化 理論(theory of internalization)을 중심으로 考察하면,

Caves는 Know-How를 企業의 經營方式에서 분

16) C. P. Kindleberger, Op. Cit, p.17-18.

리하여 移動할 수 없으므로 라이슨싱보다는 直接投資을 하게 되지만 海外經營을 하는데는 많은 資本, 統制力, 通信費用이 들게 되므로 小規模 企業은 라이슨싱을 택한다고 했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總括적이고 體係的인 理論定立의 발판은 1937년 Ronald Coase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Buckley와 Casson, Dunning에 의해서 발전되었다.¹⁷⁾

Coase의 理論은 企業間的 去來가 市場去來를 대신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企業은 利潤極大化를 目標로 內部市場(internal market)을 형성하며, 一般市場(regular market)을 이용하는 것보다, 效率的인 경우 이 內部市場을 운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市場을 통하여 去來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價格을 설정하는 費用, 契約者를 찾는 費用, 契約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費用, 市場去來에 대한 稅金 등 여러가지 費用이 發生하기 때문에 만일 企業內에서 낮은 費用으로 去來를 이룰 수 있다면 企業은 市場機能을 대신하여 去來를 內部化한다는 것이다.

Coase의 理論은 Buckley와 Casson에 의해서, 發展하였는데 이들은 R&D, 마켓팅, 인사관리, 경영진의 구성 등의 企業活動은 상호 의존적이며 中間材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中間材는 반가공품 뿐만 아니라 技術에 대한 知識人的資本 등도 포함되는데 完製品市場의 不完全性 뿐만 아니라 이들 중간시장의 不完全性도 內部化의 중요한 動機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利潤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企業은 이러한 市場의 不完全성이 발견되면 그 組織內에서 中間材市場을 內部化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관세, 세금,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정부의 規制는 內部化를 위한 動機가 된다. 왜냐하면 多國籍 企業은 內部化를 함으로써, 內部移轉價格을 조정하여 세금 및 관세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製品의 性質이나 價値에 대한 知識이나 評價에 있어서 販賣者와 購買者間的 의견 차이에 의해서도 不完全市場이 생길 수 있다. 購買者의 無知로 인하여 製品의 적절한 價格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販賣者는 購買者의 역할을 떠맡으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內部化過程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海外直接投資가 發生하며 企業의 多國籍化가 진행된다.

Buckley와 Casson에 의하면 內部化의 動機는 表 4의 4 가지 要素들이 상호관계에 의해서 決定되는

데 産業特有的 要素가 특히 重要하다고 하였다.¹⁸⁾

內部的理論과 獨占的 優位論의 차이점은 특별한 資源의 所有 그 자체가 優位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資格을 企業內에서 內部化하는 過程이 多國籍 企業에게 優位를 준다는 것이다.

(表 4) 內部化의 動機가 되는 4 가지 要素.

要 素	例
産業特有的 要素 (Industr-specific-factors)	産業의 特性, 外部市場 構造, 規模의 經濟
地域特有的 要素 (Region-specific-factors)	地理的 거리, 文化的 差異
國家特有的 要素 (Nation-specific-factors)	政治的, 經濟的, 財政的 要素
企業特有的 要素 (Firm-specific-factors)	技術, R & D, 經營知識 등

그리고, 이 內部化에 수반되는 더 많은 會計 및 管理情報의 필요, 通信費의 增加, 多國的 企業에 대한 現地國政府의 規制 및 政治的 差別에 따른 費用을 內部化로 얻는 利益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만 內部化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內部化理論에 의하면 第二次大戰以前과 以後의 海外直接投資의 패턴을 區分할 수 있는데 戰前에는 多段階의 生産過程에 必要한 中間財(주로 原資材) 市場의 內部化에 의한 海外直接投資가 일반적인 반면, 戰後에는 知識市場(技術)의 內部化에 의한 海外直接投資가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戰後 최신무기산업, 우주산업, 컴퓨터산업, 등과 같은 R&D 集約的인 産業과 製品이 發展하였기 때문이다.

3) 生産立地理論

앞에서는 不完全市場이 존재할 경우 多國籍 企業은 그들의 組織內에서 어떤 企業活動을 內部化하기 위하여 海外直接投資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內部化를 함으로써 多國籍 企業은 特定 企業의 要素를 利用하여 現地國의 企業과 競爭할 수가 있을 것이다. 內部化理論은 라이슨싱보다는 海外直接投資를 선호하는 理由를 說明해 주지만, 輸出보다는 海外直接投資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는 立地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17) P. T. Coase & M. 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Holms and Meier op publishers, Inc. New yorle, 1976. A. M. Rugman, A New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ise; Internationaligation Versus Internaliz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p.23~28. 1980.
18) P. J. Buckley & M. Casson, op. cit., p.33~44와 p.44~45.

않다.

Dunning은 企業이 企業特殊的 要因(ownership specific factor)과 立地特殊的 要因(location specific factor)에 의해 輸出 또는 海外投資를 선택한다고 보고, 전자는 國際經營學的 接近方法이며, 후자는 國際分業論 또는 立地論의 接近方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Hood와 Young은 이를 보다 일반화하여 이제까지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은 주로 市場의 不完全성에 기인하는 特定企業에 内部化된 諸生産要素의 優位 즉, 企業特殊的 要因만을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 보아 왔는데, 이는 直接投資가 이루어지기 위한 必要條件이기는 하나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하여는 企業特殊的 要因뿐만 아니라 被投資國의 企業活動與件, 즉 立地特殊的 要因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¹⁹⁾ 여기에는 生産費用要素, 마케팅과 貿易障壁, 現地國政府의 政策 등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生産費用의 要素는 海外直接投資企業이 現地國에 進出함으로써 生産費用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勞動力인데, 예컨대 A國에서 資本이 싸고 B國에서 勞動力이 싸다고 할 때 낮은 勞動費의 利點이 있는 B國에 A國企業이 進出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이 기존시장을 방어(defensive)하기 위해서는 싼 노임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을 Ruymond Verson과 Louis Wells의 製品사이클理論(Product life cycle theory)을 검토해 보면 보다 명백해 질 것이다.

Vernon에 의하면 新規商品의 導入期(New-phase stage)에는 新製품을 개발한 企業의 獨占의 優位 또는 製品差別때문에 同 製品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비교적 작고 따라서 生産立地에 따른 費用隔差가 크지 않으므로 企業은 국내에 生産立地를 選擇하게 된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인 成長期(growth stage)에 이르면 大量生産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競爭企業이 등장하며 또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커짐에 따라 企業이 生産費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規模의 經濟의 실현과 經營能力的 提高가 企業의 勝

敗를 좌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成熟期(maturity stage)에 접어들면 製品生産이 標準化되며 生産技術의 開發도 거의 限界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市場情報나 經營技術보다는 生産費가 企業의 最大 關心事로 되어 生産立地는 勞動이 낮은 開途國으로 移轉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海外子會社로부터의 逆輸入이 일어나게 된다.

Vernon의 理論은 開途國도 資本集約的인 標準화된 一部 財貨를 生産하여 先進國에 수출하는데 있어 比較優位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헤셔-오린의 定理(Heckscher-Ohlin theorem)²⁰⁾와 相馳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製品週期論의 의미하는 것은 資本이 부족한 開途國이 資本集約的인 新製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先進國에 比하여 優位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理論의 핵심은 企業이 성장함에 따라 지니게 되는 獨寡占의 行動原理에 의해 多國籍 企業의 立地問題를 규명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企業의 獨寡占段階를 製品週기와 마찬가지로 ① 技術革新寡占(innovation-based oligopolies), ② 成熟寡占(mature oligopolies), ③ 老熟寡占(senescent oligopolies)의 3 단계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란 獨寡占企業의 優位를 利用하여 利潤極大化를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는 점에서 産業組織論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하겠다.²¹⁾

한편 일본의 아카마스²²⁾는 開途國이 先進國의 生産모델을 産業發展의 進展과 더불어 추적하게 된다는 이른바 追跡製品週期論(catching-up product cycle approach)에 의해 海外投資를 說明한다. 그의 假說은 먼저 先進國의 新規商品을 開途國이 수입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일단 輸入이 시작되면 需要가 發生하고 國內需要增加는 國內生産을 誘導하게 된다. 國內生産은 初期段階에서는 輸入對替에 불과하지만 점차 生産性提高, 品質向上, 原價節減 등을 통해 規模의 經濟를 이룩하게 된다.²³⁾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開途國의 國際競爭力은 강화되며 海外市場도 개척되므로써 輸入對替産業은 輸出産業으로 전환되며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된다 이러한 輸入 → 國內生産 → 輸出의 連續的 過程이 表 5와

19) N. Hood & S. Yo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gman, p. 44~86.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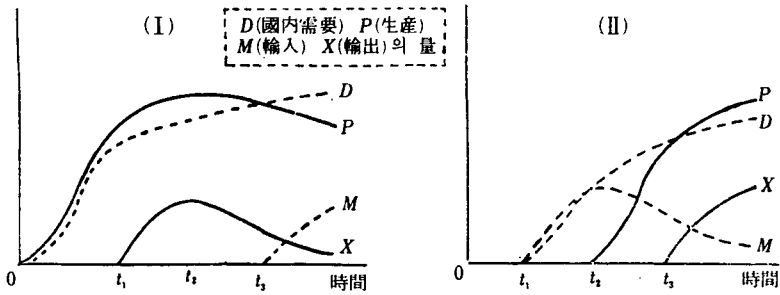
20) 各國은 他國에 比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生産要素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商品의 生産에 特化하고 상대적으로 淸소한 生産要素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商品을 수입해야만 국제분업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여론임.

21) C. V. Vaitos, Inter-country Income Distribution and Transnational Enterprises. Clarendon Press. Oxford, p. 18. 1974.

22) 李勝榮, 國際財務概論, 博英社, p. 359~360. 1983.

23)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onn. p. 121. 1958.

(表 5) Vernon의 自生的 製品週期(I)와 아까마스의 追跡製品週期(II)



같이 마치 기러기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취한다고 해서雁行形態라고도 불리운다.

그런데 追跡製品週期理論은 新製品 및 同製品의 生産工程이 新規製品段階가 아닌 標準化된 製品段階에서 관련기술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띠게 될 때 先進國에서보다는 이들 製品의 生産을 추적하는 開途國에 해당되는 理論이라는데서 Vernon의 製品週期論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假說은 海外投資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海外投資는 통상 追跡速度(catch-up pace)가 빠른 國家로부터 느린 國家에 대해 행해지며, 이 때문에 후자의 經濟發展이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海外投資가 兩國의 比較優位原理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면 兩國의 産業構造는 개편되며 交易도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赤松 要는 日本型 海外投資가 美國型과는 달리 自由競争메카니즘을 통해 순차적으로 産業移動을 행함으로써 被投資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教師(tutor)的 役割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이 生産技術이 標準期에 접어들면 生産施設을 賃금이 저렴한 國家에 설치함으로써 比較優位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의 重要 요소는 生産資源이다. 資源이 풍부한 국가에 直接投資함으로써 資源의 安定的인 供給處를 확보할 수 있으며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바나나를 生産하려고 할 때 바나나 재배에 적합한 氣候나 土壤을 가지고 있는 國家에 진출해야만 그 生産活動이 可能하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바나나를 輸入하지 않고 現地에서 生産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歴史的으로 直接投資는 大部分이 原資材의 獲得이 可能한 地域에 集中되어 왔다. 賦存資源이 自國內에 없기 때문에 國외로 進出 生産하여 왔는데 熱帶地方의 產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랑, 커

피, 차, 고무, 코코아, 黃麻, 原綿, 朱錫, 大麻 및 과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生産物은 높은 利潤의 補償이 따르기 때문에 直接投資에 대한 動機가 賦與된다. 즉 이들 商品은 國內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初期 단계에서는 利潤의 幅이 매우 높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높은 投資收益率 때문에 企業은 수입에 의존치 않고 直接投資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왜 熱帶國의 土着企業들이 先進國의 企業에게 양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그 主要理由는 先進國의 企業은 大規模의 資本과 海外情報 및 販賣의 確保,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하는 企業의 스케일, 輸送能力과 창고시설 등을 保有하고 있어서 土着企業보다는 훨씬 유리한 競爭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대국의 弱한 政治的 힘도 그 理由의 하나가 된다.

資源을 國內에 保有하고 있더라도 海外에서 채굴해 온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經濟的 코스트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枯渴性資源의 경우에는 國內의 資源이 枯渴되어 갈 수록 國內 채굴 코스트와 海外로부터 導入하는 코스트의 差異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産原料를 海外에서 획득하려고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 理論은 原資材를 産내기 위한 直接投資를 說明하는데는 適合하지만 地域別 特殊活動이외의 直接投資를 설명할 수 없다는 限界點을 가지고 있다.

세제는, 마켓팅요소로서 市場의 크기, 成長潛在力, 수송비, 관세, 商價習, 貿易障壁에 따라 立地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R. A. Mundell은 P. A. Samuelson²⁵⁾의 要素價格均等化定理에 입각하여 貿易障壁에 生産要素移動의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촉진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24) Kojima Kiyoshi(小島溝),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p.67. 1980.

25) P. A. Samuels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qualization of factors Pries, Economic Journal, 1948. 6.

예컨대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A國이 B國에 자본集約材를 수출하는데, B國이 貿易障壁(關稅 및 輸入쿼터)을 設定하였다고 假定해 보자 그 結果는 ① B國에서는 자본集約材에 대한 價格이 A國에 비하여 높아질 것이며 ② B國의 貨率은 A國의 貨率에 比해서 相對的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는 A國의 企業이 B國에 直接投資를 하기 위한 두가지의 인센티브가 생긴다. 첫째는 B國에 輸出할 때보다 더 높은 價格으로 商品을 販賣할 수 있고 둘째는 B國의 勞賃이 싸기 때문에 B國에 낮은 코스트로 生産할 수 있다. 이 두가지 要因이 A國보다 B國에 工場을 設立하면 더 높은 投資收益率을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實際로 關稅障壁은 外部로부터의 競爭을 차단하는 보호벽을 제공하는 셈이므로 外國投資를 誘到하는 效果가 큰 것이다. 그러나 貿易障壁論(trade-impediment thesis)은 要素의 移動이 오히려 貿易을 促進해 온 現實과는 거리가 있다.

貿易을 國境間의 去來(transterritorial transactions)가 아니고 國籍主義에 立脚한 國籍間의 去來(transnational transactions)²⁷⁾로 본다면 直接投資는 貿易增大를 수반한다. 現地國에서 勞動力, 土地, 其他 輸送不能서비스(nonexportable service)를 購入하고 商品을 販賣하는 것은 分明히 國籍間去來의 增大이기 때문이다.

貿易을 國境間去來에 立脚한다 하더라도 貿易量은 增大된다. 대개의 現地進出企業은 現地에서 購入하는 외에도 기계, 부속품 등을 外國으로부터 現지국으로 輸入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만약 그 企業이 海外에 進出하지 않고 自國內에 駐在한다 하더라도 라이벌과의 競爭이 不可能할 지 모르므로 自國의 輸出이 그 企業이 外國에 進出함으로써 해서 반드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Mundell은 B國에 進出한 A國企業(A/B)²⁸⁾은 B國에만 販賣하는 것으로 假定하고 있지만 美國, 英國의 경우만 하더라도 鑛產物 등의 資源을 産出하여 本國 내지는 第3國에 進出하였고 멕시코,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現地工場도 주로, 美國에 팔기 위해서 製品을 生産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要素의 移動으로 因하여 國籍主義는 勿論 國境主義에서 본 貿易量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增大한다는 結果를 얻을 수 있고 貿易障壁을 없애므로써 오히려 直接投資가 增加한다는, 말하자면 Mundell의 理論과는 相反되는 結論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相反된 結論의 理由는 간단히 說明될 수 있다.²⁹⁾ 즉, 무역장벽이 약해지거나 除去되면 企業의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되면 比較우위의 企業이 직접 투자하게 된다

지금까지 海外直接投資를 왜 하는가에 대한 理論을 3가지 構成要素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美國과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決定패턴은 잘 說明되지만 日本型和 韓國 및 開途國의 投資決定은 명확치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기 위하여 Kojima와 Duning理論을 중심으로 투자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海外直接投資 類形³⁰⁾

1) 貿易指向型和 逆貿易指向型(trade-oriented vers anti-trade oriented)

海外直接投資는 資源指向型, 勞動指向, 市場指向型으로 區分한다.

첫째, 資源指向型投資는 貿易創造의 動機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投資國(investiry country)에서 生産되지 않은 比較劣位品을 海外에서 開發輸入할 目的으로 直接投資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土地와 自然資源의 利占을 追求하기 위해서 投資國에 進出한다.

26) 要素價格均等化定理에 따라 自由貿易下에서 B國의 임금이 上昇하여 양국의 임금이 均等화 되었을 것이다. 貿易障壁이 設定되면 均等化이전의 단계로 환원될 것이므로 노동력이 풍부한 B國의 임금은 A國에 대해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27) Irvin M. Grossack에 의하면 국제교역(international transaction)을 교역당사자의 位置(location of the transaction parties)에 立脚한 國境거래(transterritorial transactions)로 볼 것이 아니라, 교역당사자의 國적(nationalities of the transacting parties)에 근거한 國적거래(transterritorial transactions)로 정의해야 한다고 하는 國적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論理는 商品의 位置만을 바꾸는 것은 意味가 없고, 商品의 소유권, 국제간의 債務, 국가의 외환보유고, 및 國民所得에 영향을 미치는 去來가 국제교역으로 看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國企業들이 B國에 進出하여 B國內에서만 去來를 할 때도 結局은 위의 要素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교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rvin M. Grossack, Ibid, p. 73).

28) 分子가 企業을, 分母가 國家를 表示한다. 따라서 A/A라 함은 A國에 있어서의 A國企業을, B/A라 함은 A國에 進出한 B國 企業을 意味한다.

29) Irvin M. Grossack, Ibid, p. 121.

30) Kigoshi Kojima; A Macro economic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a New world. Trade policy; The Maiden head papers 75. D. C. Neath and Compang. p. 75-99.

둘째, 勞動指向型投資는 貿易再編成的動機를 부여하는 것이다. 先進國의 貨金은 資本, 用役의 價格引上에 따라 매년 등기되기 때문에 資本, 技術, 知識集約産業에 投資하던지 아니면, 先進國은 전통적인 勞動集約産業을 축소하고 勞動Cost가 싼 低賃金國으로 投資를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勞動指向型投資는 勞動稀少國과 勞動豐富國間에 國際分業을 再編成하는 동시에 상호 무역을 확대하고 조화하는데 공헌하게 된다.

셋째, 相對國(Host country)의 貿易障壁이 강화되어 直接投資로 전환하는 輸出代替型으로 保護된 市場에서 높은 商品價格의 利點을 活用하기 위해 相對國에 진출하는 것이다.

네째는, 미국의 거대한 獨寡占企業의 獨占的인 海外直接投資는 逆貿易指向型投資이고 다섯째는, 生産販賣의 國際化에 따라 주로 先進企業間에 이루어지는 分業的 직접투자를 수직, 수평적企業內 分業型投資이다.

이상의 投資類型에서 市場指向型과 輸出代替型 直接投資는 日本型 型態이고 寡占 또는 수직, 수평적 直接投資는 美國 및 先進國型 型態이다. 그리고 勞動資源指向과 勞動指向型은 제 3 세계의 海外直接投資型態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1) 日本型 海外直接投資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製品輸出을 뒷받침하기 위한 輸出補完의 내지 輸出代替的인 性格을 띠고 주로 開發途上國에 進出하는 貿易指向型(trade-oriented)이다.

즉,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石油나 礦物資源같은 豐富한 地下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의 天然資源開發에 投資한 後에 交易을 增大시키거나, 産業化를 서두르는 國家에 比較優位를 상실한 産業의 工場設備나 노우-하우(know-how)를 投資하고 製品을 被投資國으로부터 輸入을 하는 貿易指向型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日本의 纖維工業과 같이 勞動集約的인 産業은 賃率이 自國보다 相對的으로 韓國이 有利할 경우, 日本은 資本, 技術 등 高度의 經營資源을 갖고 우리나라에 合作投資의 型態로 投資를 하는 것이다.

Kojima는 일본의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행한 直接投資는 어떤 比較優位要素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는 政府의 政策이 海外直接投資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 美國型 海外直接投資

美國型 海外直接投資는 逆貿易指向型(antitrade-oriented)으로서 研究開發에 의한 技術集約的인 新製品을 開發하면 高度의 比較優位를 갖는 少數 獨占的 企業은 技術水準의 差異가 있는 한, 輸出을 增大시킬 수 있다.

그러나 競爭企業이 발생하고 더우기 人件費의 上昇으로 勞動集約的인 技術革新이 수반되면 製品의 形態와 技術은 安定되므로 製品 標準化 段階에 이르는 價格競爭만 남게 된다. 따라서 投資企業의 立場에서 볼 때는 最低코스트의 供給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므로 가장 勞動集約的인 生産段階에서는 産業全體의 輸出增大보다는 企業自體의 合理的 經營을 위하여 開發途上國에 投資하게 된다. 예를 들어 美國의 컴퓨터産業과 같이 絶對優位를 갖는 産業의 企業도 海外市場에 進出코자 할 때 傳統的인 輸出伸張에 企業戰略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海外에 直接投資함으로써 그 目的을 달성코자 하는데 있다.

3) 第3世界型的 海外直接投資

1970년대에 들어 한국, 홍콩, 자유중국, 멕시코, 인도 등의 國家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第3世界의 新興工業國들이 행하는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는 順位理論(pecking order approach)를 Kojima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各國은 어떤 製品을 生産하는 時期에 따라서 順位(pecking order)가 정해지며 이 順位에 의해서 다음 順位の 國家로 輸出할 뿐 아니라 海外直接投資도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第3世界型的 多國籍企業은 本國보다 順위가 낮은 國家에 海外直接投資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順位理論은 技術의 可能性 여부와 生産費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比較優位要素인 技術이 順位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假定하고 있다.

Wells는 第3世界企業(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新興工業國(NICS)에서 이들 國家에 비해 所得水準이 낮은 小規模國家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第3世界企業은 新興工業國企業들이 先進國에서 技術을 습득하여 國內市場에 맞게 技術을 適應시킨 후 後發開發途上國에서 이들 製品에 對한 需要가 規模의 經濟가 可能한 정도로 증대하게 되면 生産施設을 移轉하게 되어 國際化 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開途國多國籍企業들은 先進國企業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開途國多國籍企業의 製

造技術에 관한 情報을 潛在購買者(potential buyer)들은 모른다.

둘째, 開途國多國籍企業의 技術은 特許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셋째, 開途國多國籍企業의 經營者 및 技術者의 知識은 體系化(codified)되어 있지 않다.

南美와 아시아지역 國家들의 海外直接投資分析은 Wells의 主張을 實證的으로 合理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White는 南美企業들에 대한 研究에서 海外直接投資 흐름에 대해 Wells가 主張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와 같이 市場이 넓고 부유한 國家企業들은 에콰도르,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 같이 市場이 협소하고 所得水準이 낮은 國家의 主要投資企業이라는 것이다.³¹⁾ 인도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分析한 Agrawal의 研究에서도 인도企業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에 投資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資材, 機械 등의 現物出資方式으로 合作投資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²⁾

Dunning은 LDC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해 그의 折衷理論(Eclectic theory)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特定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性向은 다른 國家의 企業들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特定企業의 優位要素(ownership-specific advantages), 內部化 優位要素(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生産立地上的의 優位要素(locational advantages)에 의해 決定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Dunning은 또한 外國人國內直接投資와 內國人海外直接投資의 차이로 나타내는 特定國의 投資優位(investment position)는 經濟發展水準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Dunning은 브라질과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이들 國家의 立地的 優位要素의 감소때문이라기 보다는 特定企業의 要素의 向上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³³⁾

IV. 結 論

海外直接投資를 決定하는 明快한 定說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이 投資가 複合的인 여러변수로 構成되어 있어서 하나의 說明變數로 카바할 수 없기 때문이다. 海外直接投資決定의 理論은 ① 海外直接投資가 不完全市場의 產物이기 때문에 特定企業이 所

有하고 있는 技術, 産業構造 등의 優位要素에 의해서 ② 企業의 優位要素와 內的 資源의 效率의 配分과 利用을 하는데 原資材市場과 知識(技術)市場의 內部化 優位에 의해서 ③ 現地國의 산업특유, 지역특유, 국가특유; 기업특유의 요소에 의한 生産費用, 마케팅, 貿易障壁, 政府政策 등의 生産立地的 優位要素에 의해서 그리고 ④ 政府의 政策과 現地國의 比較優位要素를 利用함으로써 産業構造 改善에 의해서 이득되는 日本型和 ⑤ 製品을 生産하는 時期의 順位(Pecking order)에 의해서 決定되는 한국, 홍콩, 자유중국 등의 제 3 세계형이 있다.

그 이외에도 Wells는 開途國 企業의 海外投資는 先進國 技術을 習得하여 國內시장의 맞게 적응시킨 후 후발 開途國에서 이들 製品에 대한 需要가 規模의 經濟가 可能할 때라고 하였고 Dunning은 브라질과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特定企業의 要素 向上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海外直接投資決定의 理論은 海外直接投資決定의 변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결정에 의해서 실현된 投資가 投資國 經濟에 미치는 效果도 그 理論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要約하면 첫째, 海外投資에서 發生하는 配當, 利子 등의 投資收益과 資本輸出에 따른 國內投資의 減少로 유발되는 負의 效果, 둘째, 投資財의 반출에 따른 直接的인 輸出效果와 被投資國의 經濟開發에 따르는 間接的인 開發效果, 셋째, 願備機會의 輸出로 인한 國內失業의 增加와 誘發輸入에 따른 國際收支上的의 영향, 넷째, 國內産業의 國際的인 比較優位變化招來, 다섯째, 經營資源移轉에 따른 被投資國 資源配分 왜곡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韓國은 韓國의 여건에 맞는 理論을 토대로 하여 合理的인 海外直接投資를 增加하여 輸出增大, 技術開發과 첨단기술 국내이전추진, 國際수지개선, 新市場開拓, 무역마찰해소, 자원확보, 果實送金 등으로 國家經濟開發과 成長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수출증대 관점에서는 市場指向型投資가 바람직하고, 둘째는 자원의 장기안정적인 공급면에서는 資源開發型投資가 시급하고, 셋째, 기술개발과 혁신, 해외첨단기술 국내이전으로 産業構造를 고도화하여 特定企業의 要素 向上에 의한 投資 촉진과 넷째, 海外直接投資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정부는 엄격히 규제, 選別投

31) E. White, The International projection of Firms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in K. Kumar and M. G. Mcleod (ed), op. cit., 1981.

32) R. G. Agrawal, Third-World Joint venture: Indian Experience, in K. Kuman and M. G. Mcleod(ed), op. cit.,

33) J. H. Dunning,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Cupport of the Ect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 Kumar and M. G. Mcleod(ed), op. cit., 1981.

資本 적당 유도해 나가야 하고, 다섯째, 企業合同의 形態를 취하면서 投資의 效率性을 극대화해 두어야 하고 끝으로 자본주의 成功의 英웅은 戰略과 發明을 活用하는 新產業 분야의 개척자들인 企業人 들이고, 경제성장의 원리는 자본과 創造的인 우수 기업인과의 결합이라고 미국의 經濟學者 조지길더(George Gilder)는 企業의 精神(The spirit of Enterprise)에서 주장하듯이 우리의 企業人들이 보다 合理的인 方法에서 被投資國과 投資事業分野를 選定하여 적정 규모의 투자와 創造的인 經營管理로 被投資國 企業과 多國籍企業과는 경쟁에서 優位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안내, 1984.
2. 王瞻鍾, 多國의 企業經營論, 法文社, 1983. 籍
3. 李勝榮, 國際財務概論, 博英社, 1983.
4. 魚允大, 韓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 1984.
5. 韓奇哲, 海外直接投資와 經濟的報及效果, 金融, 82, 1. 2. 3月號.
6. 柳根哲, 海外直接投資事業의 妥當性檢討, 韓國 產業銀行, 83.
7. 裴成憲, 韓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促進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成人貿易大學院) 83,
8. 小島清, 多國籍 企業의 直接投資, 다이아몬드 1982. 1983. 사,
9. Kivoshi Kojima, A macro Economic Theory of Foreign
10. Direct Investment, Toward a New World Trade Policy, 1975.
11. David K. Eiteman & Arthar I. Stonehill,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Second Edition;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12. Neil Hood & Stephen 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gman Group Limited, 1979.
13. R. E. Caves, Internati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ruary, 1971.
14. Davidosn, W. H.,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xy, chaiaacteristics aand Experienc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0.
15. Dunning, J. H., Towards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0.
16. Kihleberger, C. P., American Business Ahroae, Siy Lectares on Direct investment, New Hoven, Conn Yale U. P., 1960.
17. Verman, R., Strom over the Multinationals: The Real Issues, Lundon Macmillan, 1977.
18. Wolls, Jr. L. 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gmen, T. and Kindleberger, C. P. Mulinational from Small Countries; Cambhidge MIT: Press, 1977.